

# 권필의 「취시가(醉時歌)」 연구

鄭尙均\*

## 〈차례〉

- I. 머리말
- II. 권필과 김덕령
- III. '긴 칼'의 의미
- IV. 「취시가」의 아름다움

## I. 머리말

권필은 조선조 선조 2년(1569) 서울에서 태어나 광해군 4년(1612)에 사망하였다. 젊어서부터 시로 명성을 얻었고 매사에 비판력을 발휘하며 불의를 참지 못했다. 특히 그는 당시의 정치 현실을 시를 써 개탄해 마지않았는데, 시 「투구행(鬪狗行)」 「문임무숙삭과(聞任茂叔削科)」 등은 유명하다.<sup>1)</sup>

권필의 시적 재능을 누구보다 분명히 칭송한 사람은 같은 나이인 허균(1569-1618)이었다. 그는 「석주소고서(石洲小稿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서울시립대학교

1) 권필, 석주집, 오성사, 1982, 85, 289면(이하 '석주집'으로 약칭).

권필은 본래 게을러 지은 것을 모으지 않았는데 심생(沈生)이 전승되는 것 수백 편을 모아 「석주소고(石洲小稿)」라 제목을 붙이고 내게 보여주므로 나는 읽고서 흐뭇하여,

“내 말이 거짓이 아닐진저, 이에 나아가 권필의 전모를 볼 수 있으니, 고인을 압도하고 일대에 제일가는 자가 권필이 아니고 그 누구이라? 세상이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해서 권필에게 무슨 병이 되랴? 하물며 뒷세상에 양자운(揚子雲)을 알아주는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

하고 드디어 비평을 하였다.

때로 소리 내어 외어 보면 이와 불 사이로 바람이 으시시 일어나 저도 모르게 신기가 멀리 높은 하늘까지 날아오르니, 아, 지극하도다.

그 인품의 높음이 시보다 더욱 우뚝하나, 세상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 시보다 더욱 심하니, 아, 애석하도다.<sup>2)</sup>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한 「취시가(醉時歌)」는 그 동안 크게 주목을 받아온 시는 아니나, 실로 권필의 시문학을 요약하고 그의 마음속에 전제된 구극의 고민을 구체화한 작품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우선 「취시가」 제작 배경과 작품 「취시가」 전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꿈속에 작은 책자 하나를 얻었는데 김덕령 시집이었다. 그 첫머리 시가 「술 취한 노래(醉時歌)」였다. 내가 그것을 세 번 반복하였더니 외워졌다. 그 노래에 이르기를 “술 취해 노래 부르니, 이 곡조 알아들을 사람이 없구나. 나는 꽃과 술에 술 취하기 바라지 않고, 공훈을 세우는 것도 바라지 않네. 공훈을 세우는 것 그것은 뜬구름이요 꽃과 달에 술 취한 것 그것도 뜬구름이라. 술 취해 노래하니 내 마음 알 사람이 없네. 다만 한 가지 소망은 긴 칼 잡고서 밝은 임금 받드는 것(醉時歌, 此曲無人聞, 我不要醉花月 我不要樹功勳, 樹功勳也是浮雲, 醉花月也是浮雲, 醉時歌, 無人知我心, 只願長劍奉明君)”이라고 했다. 꿈을 깨고 보니 한없이 쓸쓸하고 슬펐다. 그래서 시 하나를 지었다……<sup>3)</sup>

2) 허균, (국역)성소부부고, 민족문화추진회, 1983, II권, 45면.

KCS I

---

3) 석주집, 238면.

## II. 권필과 김덕령

권필의 시 「취시가」는 임진왜란(1592, 선조25)이라는 더할 수 없는 민족의 큰 수난을 현실적 배경으로 한 시이다. 권필의 절망은 궁극적으로 ‘부패 무능한 당시 정부 관리’에 비롯된 것이지만, 그들의 부패 무능은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혼란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권필은 이에 더욱 통분함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송시열은 권필의 「묘갈명(墓碣銘)」에 다음과 같이 썼다.

임진왜란 때 권필이 친구 구용(具容)과 함께 임금께 상소하기를 ‘화평을 주장하고 임금께 아담치는 두 정승(유성룡 이산해)을 목 베라’라고 하니, 권필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sup>4)</sup>-송시열의 「묘갈명」

왜적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으로 ‘두 정승(유성룡, 이산해)의 목을 쳐라’고 임금께 직소한 당시의 권필의 나이는 24세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2년 전(1590, 선조23)일본을 다녀온 김성일은 풍신수길의 면모를 묻는 왕의 말에 “그 눈이 쥐 같아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였고,<sup>5)</sup> 조정의 전쟁가능성 논의 중에 유성룡은 “설령 수길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듯하다”<sup>6)</sup>고 했고, “무사한 때에 양병은 도리어 화를 기를 뿐”<sup>7)</sup>이라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었다. 그러한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임진왜란의 참화를 맞게 되었으니 권필의 주장은 오히려 당연한 말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송시열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권필을 싫어하는 사람은 더욱 많아졌다’라고 하였으니, 당시

4) 이상은 편, 한국역대인물집성, 민창문화사, 1990, 2권 275면.

5) 이병도, 국사대관, 보문각, 1959, 407면.

6) 같은 책, 407면.

7) 같은 책, 404면.

권필 등의 ‘주전과’는 소수에 그쳤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권필과 더불어 당시 주전과의 선두에 섰던 이가 조현이었다. 당시 조현의 행적을 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왜사(倭使)의 왕래로 인하여 인심은 매우 소동되었고 이때 조현은 옥천(沃川)에서 백의도보(白衣徒步)로 상경하여 궐문에 나아가 왜사의 목을 베자는 강경한 상소를 올리다가 거절되매 통곡하고 물러간 일이 있었다.<sup>8)</sup>

권필은 조현과 완전 동계의 생각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현은 어떤 인물인가.

이조 선조 때의 학자, 의병장…… 1572년(선조5)홍문관 정자(正字)로 왕의 불공(佛供)이 옳지 않음을 극간(極諫)하다가 파면되었고…… 정여립(鄭汝立)의 행태를 통박하였고……1591년…… 상경하여 왜적을 대비할 책을 상소했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주에 내려가 700명의 의사를 얻고……금산(錦山)10리 밖에서……(왜구와) 역전분투하여 적에게 많은 손해를 주었으나 중과부적으로 드디어 조현 이하 700의사가 전멸했다.<sup>9)</sup>

조현은 한 마디로 임진왜란의 문제에 온 몸을 던져 고민하고 마침내는 목숨을 바친 대표적 열사라고 할 수 있다. 권필은 이러한 조현의 죽음을 「만중봉선생(挽重峯先生)」 시에서 다음과 같이 애도하였다.

몇 번이나 주운(朱雲)처럼 난간을 부서지게 했던가.  
오래도록 굴원(屈原)처럼 초나라 물가에 홀로 깨어 있었네.  
큰 군자(君子)를 따라 배워  
작은 조정에선 벼슬할 수 없었네.  
끝은 기상은 하늘과 땅을 텃마루같이 생각했고

8) 같은 책, 407면.

9) 이홍직, 국사대사전, 한국출판사, 1439-1440면.

외로운 충성심은 해와 별처럼 빛나네.

높고 높은 금산(錦山)의 산 빛은

어찌 만고에만 푸르리.

(幾折朱生檻 長爲楚水醒

從知大君子 不處小朝廷

直氣軒天地 孤忠炳日星

崔嵬錦山色 萬古只麼青)<sup>10)</sup>

주운(朱雲)은 중국 한나라 성제 때 임금에게 “원컨대 상방에서 만든 참마검(斬馬劍)을 빌려주시면 간악한 신하 한 사람(성제의 사부, 안창후)의 목을 베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sup>11)</sup>라고 강경 발언을 한 사람이고, “굴원은 청렴과 박학함으로써 회왕에게 신임을 받았으나, 참소하는 자가 있어서 차차 냉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소」라는 시를 지어 자기의 불우함을 한탄했고 경양왕 때가 되어 또 참소가 있어 양자강 남쪽으로 귀양가 마침내 떡라수에 몸을 던져 죽은”<sup>12)</sup> 통찰력을 과시한 시인이다. 권필은 당시에 조현의 행적을 주운과 굴원에게 비기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리고 권필은 조현의 문집 『중봉동환봉사(重峯東還封事)』 발문(重峯東還封事後跋)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선생님의 글 『封事』를 읽다가, ‘완강한 구름이 걷히지 않으니 하늘의 태양이 항상 어둑구나(頑雲不解 天日常陰)’에 이르러서는 세 번이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sup>13)</sup>

10) 석주집, 431-2면.

11) 십팔사략, 상권, 299면.

12) 같은 책, 139면.

13) 석주집, 435면.

위의 ‘완고한 구름(頑雲)’이란 당시 선조 임금의 둘러싸고 있는 주화파 이산해 유성룡 등을 지칭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헌과 권필은 완전히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필의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취시가」는 지어졌고 이러한 시국관 정부관의 연장선상에서 역시 김덕령이 이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덕령의 일대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김덕령 1567(명종 22)-1596(선조 29)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자는 경수(景樹), 시호는 忠壯, 본관은 광주(光州), 봉섭(鵬變)의 아들. 어려서 글을 배워 장성하면서 우계 성혼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93년(선조 26) 담양(潭陽)에서 의병을 일으켜 익호장군(翼虎將軍)이라고 사호(賜號)를 받았으나, 1595년(선조 28) 이몽학(李夢鶴)의 난 때에 적의 책략으로 적장과 통한다는 말이 나와 서울로 압송되어 고문에 지쳐 옥중에서 죽었다. 영조 때 그 억울함이 알려져 병조판서로 추존되고 광주 의열사(義烈祠)에 배향되었다.<sup>14)</sup>

김덕령은 권필보다 2년 먼저 출생했으나 30세(1596)에 사망했으니, 권필의 나이 28세 때 죽은 셈이다. 위의 김덕령 생애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적장과 통한다는 말이 나와 서울로 압송되어 고문에 지쳐 옥중에서 죽었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특히 작품 「취시가」의 이해를 위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29년 8월 4일 김덕령을 체포 서울로 압송하여 임금에게 친국을 당했던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죄인 김덕령(金德齡)을 친국(親鞫)했다. 상이 이르기를,

“금군(禁軍)과 위사(衛士)들에게 밥을 먹이도록 하라.”

하였다. 김덕령은 나이 30이었다. 추국하기를,

“역적 한현(韓絢)·이몽학(李夢鶴)등과 결탁하여 몰래 통하며 모의(謀議)하여

14) 국사대사전, 262면.

성세(聲勢)를 만들고, 국가가 위태하고 어지러운 때를 당해 불궤(不軌)를 도모한 사실이 모든 역적들의 공초에서 셀 수 없이 나왔다. 한 현의 공초 내에 ‘장수는 김덕령이다’ 했고, 또 ‘이몽학과 박승립(朴承立)이 김덕령을 찾아가 만나보고 함께 거병(擧兵)하는 일을 모의했다.’ 하였으며, 유규(劉趯)의 공초 내에는 ‘진라도에 김 장군이 있는데 장군의 명칭은 익호장군(翼虎將軍)이다.’ 했고, 이업(李業)의 공초 내에는 ‘장후재(張後載)가 김덕령에게 왕래했는데 덕령이 「사세를 보아가며 하라.」고 했다.’ 하였다.

전후로 역적들의 공초가 의논한 것도 아닌데 말이 똑같았으니, 흉악한 음모와 비밀한 계책을 서로 통하면서 함께 반역을 한 정상이 밝은 하늘아래 훤히 드러나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짓을 꾸민 내력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진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비록 도적들의 한 말이 그와 같을지라도 공모했다면 반드시 오고 간 자취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해가 훤히 비추는 아래에서 제가 군부(君父)에게 진달(陳達)하는 말이니, 옳으면 옳다 하고 그르면 그르다 할 것이니,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3-4년 동안이나 친척들과 이별하고 분묘(墳墓)도 버려두고서 변방에 나가 고생하며 방수(防戍)했었으니, 만일 국가에서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큰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터무니없는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적의 무리들이 국가에서 저를 쓰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시기하여 모함하는 흉계를 부린 것입니다. 제가 우러러 받드는 군부의 앞에서 분변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발명(發明)하겠습니까?”<sup>15)</sup>

위의 글에 명시되어 있듯이 왕은 ‘반역을 꾀한 것이 훤히 드러나 있다’고 이미 김덕령의 ‘반역, 모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김덕령은 ‘만일 나의 노고를 국가에서 알면 반드시 큰상을 주었을 것이다’고 하였다.

같은 『조선왕조실록』 8월 20일 초에 “김덕령을 5차 형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sup>16)</sup> 8월 23일 조에는 “김덕령이 이미

15) 선조실록, 민족문화추진회, 1987, 18권 242-3면(선조 29년, 8월 4일)

16) 같은 책, 274-5면.



형장(刑杖)에 죽었다”고 적혀 있다.<sup>17)</sup> 한 마디로 근 20일의 형문 끝에 김덕령이 죽은 것이다. 이때에 유성룡이 말하기를 “김덕령은 역적들의 공초에 나왔으니 의심할 것이 없다(선조 28년 8월 4일)”고 하여<sup>18)</sup> 역시 ‘김덕령의 반역문제’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앞서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김덕령은 ‘그 역술함이 알려져 병조판서로 추증되고 광주 의열사에 배향되었다’. 이 김덕령을 소재로 하여 이루어진 소설이 『충용장군 김덕령전(忠勇將軍 金德齡傳)』이다. 이 『김덕령전』에서는 선조의 김덕령 심문을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선조대왕이 다시 김덕령을 잡아드려 심문하야 같오되 네 죄가 있는데 너는 그를 은닉하니 더 큰 죄가 아니냐

덕령이 같오되 신은 죄가 업습니다 신은 모반한 죄가 업습니다 선조대왕이 같오되 네가 죄업노라 하나 조사한 바에 네 죄가 확실한데 엇지 죄가 업다 하나냐 덕령이 같오되 신이 죄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무슨 일을 하겟다고 나온 것이 신의 죄오 군사를 니러킨지 삼년에 적군을 쳐물니지 못한 것이 신의 죄오 나라에 소인의 무리가 만히 잇거늘 그를 막히지 못함이 신의 죄로소이다

선조대왕이 같오되 네가 종시 바로 말하지 아니하니 너는 죽는다 덕령이 같오되 신의 죽을 죄는 임의말하얏습니다 그러나 신은 죽으나 신과 함께 잡힌 최담녕, 광재우의 무리는 죽이지 말으시옵소서 신은 죄가 있으나 그네들은 아모 죄가 업습니다 쓸만한 사람을 다 죽이면 나라일을 할 수 업슬터이오니 그네들은 살여두시옵소서 하거늘 선조대왕이 덕령의 눈이 번개갓고 덕령의 말소리 뇌성갓흠을 보고 더욱 겁을 내여 이에 무사를 식여 덕령을 감옥으로 내려다가 엄중히 심문하야 덕령의 죄상을 도사하야 올니리하얏다 감옥에서 덕령을 심문할세 덕령이 종시 불복하니 감옥에서 독끼로 적령의 살점을 찍어내어 빼만남거늘 또 톱으로 덕령의 뼈를 켜서 빼가 모다 부스러진지라 덕령이 종내 불복하고 죽으니라

덕령이죽거늘 정부에서 광재우, 최담녕, 최강의 무리는 다 노아 주었다 덕령

17) 같은 책, 279면.

18) 같은 책, 243면.

이 죽으매 백성들은 그를 슬피덕여 눈물을 흘리며 갈오되  
김장군이 죽었스니 우리는 다 죽는다 하고, 일본 사람들은 너무 조와서 깃버  
뛰며갈오되  
이제는 조선 땅을 마음대로 횡행하갓다 하더라<sup>19)</sup>

위에 인용한 『김덕령전』은 『조선왕조실록』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큰 줄거리는 맞추고 『왕조실록』에 생략되어 있는 김덕령의 진술을  
추가하고 그의 억울한 죽음을 더 구체적으로 부각시킨 것이 특징이  
다.

원래 선조 29년 8월 4일 김덕령을 체포 선조의 친국이 있기 전 7  
개월 전 동년 1월 13-14일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사헌부가 전에 아뢰던 내용으로 아뢰기를,  
“김덕령(金德齡)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세 사람이나 때려 죽여 그 잔혹함이 극  
심하므로 법에 있어 놓아줄 수 없습니다. 김덕령을 잡아와 추국하고 율에 의해  
죄목을 정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직 흉적이 국경에 있는데 먼저 용사(勇士)를 죽이는 것은 불가한 일이 아  
니겠는가. 일에는 경(經)과 권(權)이 있는 법이니 좀 서서히 의논한들 무엇이 늦  
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sup>20)</sup>

위의 선조의 말 중에 ‘흉적이 국경에 있는데 먼저 용사를 죽이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는 명쾌한 논리이다. 그러나 김덕령은 결국 살  
해되었다. 당시 병조판서를 맡고 있는 이덕형도 반역으로 무고되었  
으나 변명하고 풀려났다.<sup>21)</sup> 그런데 김덕령은 왜 스스로 변명하지 못

19) 충용장군 김덕령전, 덕흥서림, 1926, 529-531면.

20) 선조실록, 17권, 31-32면.

21) 같은 책, 18권, 208-9면(선조 29년 7월 19일).

했는가. 그것은 『김덕령전』에 명시되어 있듯이 선조대왕이 겁을 내어 풀어줄 수 없었던 것이다. 선조는 ‘암주(暗主-어리석은 임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시 ‘명주(明主, 明君-어진 임금)’이라고도 하기 어렵다. 당시 중상모략이 판을 쳐 쉽게 시비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으나 김덕령 등을 친국에 붙이어 결국 형장에 죽게 한 것은 선조의 담략(膽略)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시인 권필은 꿈속에 김덕령이 되어 「취시가」를 지은 셈이다. 그 「취시가」에 김덕령은 ‘밝은 임금을 받들고 싶다(奉明君)’라고 자신의 심경을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권필의 소망이다. 권필은 역시 생시에도 다음과 같은 시를 쓴 적이 있다.

원래 본디 내 마음 영광스런 명예에 있지 않고  
 밝은 임금 보좌하여 태평성대 이루기를.  
 사람들은 내 뜻 알지 못하고 이제 끝났으니  
 흰 머리털 되어 평생의 뜻 저버렸음을 거듭 깨닫겠네.  
 (素心元不在榮名 欲佐明君致太平  
 人莫我知斯已矣 白頭重覺負平生)<sup>22)</sup>

위사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밝은 임금 보좌하여 태평성대 이루기를(欲佐明君致太平)’이라는 부분이다. 위 시의 주지는 「취시가」와 하등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취시가」와는 그 호소력에서는 역시 한 자리에 놓을 수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은 선조임금의 형문에 죽은 ‘충용장군 김덕령’의 이미지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용장군 김덕령의 이미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권필이 말한 바 ‘한없이 쓸쓸하고 서글픈 것(悵然悲之)’ 비극적 체험의 완전한 구현이다. 권필의 연보를 살펴보고 그의 전 시작품을 읽어보면 그는 당시 뛰어난 안목과 용기를 가지고 정부와 시국을 통찰하고 있었고, 그것

22) 석주집, 275면.

을 다시 자신의 비판적인 시나 직접적인 상소를 통해 누구보다 스스로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그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논리는 당시 위정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도리어 그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무리가 많아지게 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는 더욱 그의 논리를 가다듬고 세상에 통할 수 없는 그의 처지를 통탄해 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일개 문인(文人) 서생(書生)으로 일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권필의 모습은 그가 당시 대표적 인물인 김덕령과 동일시했던 일이 가당치 않은 일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권필은 다음과 같은 시를 쓴 일이 있다.

오십 가의 병서를 독파하고서  
나이 어릴 적 사람들에게 뽐내기도 했었지.  
늙어서야 활과 같은 내 일 아님을 알았으니  
맑은 강 얇은 모래밭에 낚시질이나 하리라.  
(讀破兵書五十家 少年豪氣向人誇  
晚知弓劍非吾事 歸去清江釣淺沙)<sup>23)</sup>

중국 촉한(221-262)시대 제갈량은 창검을 잘 구사하는 무장(武將)은 아니었으나 엄청난 싸움을 주도한 전략가였다. 권필도 중국의 역대 병서를 ‘소년 시절’에 독파하였다고 한다. 만약 권필에게 누가 ‘당신 같은 문인으로 무인 김덕령과 비교함이 옳은가’하고 물었다면, 권필은 틀림없이 ‘어찌 일개 무장과 나를 비교하겠는가’하고 대답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고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권필은 당시 누구를 자신 탄압의 원흉으로 생각했는가.’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일찍이 권필이 「임진년 상소」에 명시한 대로 ‘화평을 주장하며 임금께 아당치는 두 정승’ 유로 단정할 수 있다. 권필은 「투

---

23) 같은 책, 276면.

구행(鬪拘行)」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다.

누가 개들에게 뼈다귀를 던져주었나  
 못 개들이 바야흐로 사납게 다투네.  
 작은 놈은 반드시 죽고 큰 놈도 상처입네.  
 도적은 엿보다 틈을 타고자 하고  
 주인은 무릎을 안고 한밤중에 우는구나.  
 비 오고 담장 무너졌으니 백가지 근심 싸이네.  
 (誰投與狗骨 群狗鬪方狼  
 小者必死大者傷 有盜窺窬欲承豸  
 主人抱膝中夜泣 天雨墻壞百憂集)<sup>24)</sup>

위 시의 비유체계를 편의상 ‘개는 당시 벼슬하는 이, 뼈다귀는 이권, 도적은 왜군, 주인은 선조, 담장은 국경’ 등으로 등치시켜 볼 수 있다. 권필의 절박한 시국관을 토로한 시라고 볼 수 있다. 위 시에서도 역시 문제는 ‘이권다툼에 나라를 돌아보지 않는 벼슬하는 이들’이 크게 문제된 셈이다.

시인 권필을 절망시킨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당시 위정자들’이다. 이것은 결국 세상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지고 권필을 술과 몽상의 세계로 더욱 확실하게 달려가게 한 궁극의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요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꼭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하는 물음에 들어가면 역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대답이 나오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필의 시대상황과 정치적인 부정적 요인은 권필의 인생 전개에 외부적 요인은 될 수 있을망정 필연적 내적 동기의 귀착점을 예견케 하는 인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권필이 뛰어난 시인으로 「취시가」 등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평생의 운명적 생애의 전개 속에 얻어진 소득이지만, 그 실천적 내부인자가 외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형성된 바라고 설명할 수밖에

24) 같은 책, 85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의 ‘비극적 체험’에 집중하여 풀지 않을 수 없다. 권필의 출세를 막은(‘母性’에로의 진출을 막은), 부패한 관리들(‘사악한 아버지’)들이 문제이다. 권필은 「문임무숙삭과(聞任茂叔削科)」 시를 쓰고 김덕령처럼 왕(광해군)의 친국을 받고 귀향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

궁궐 벼들은 푸르고 푸르며 꽃들은 어지럽게 나니  
성안에 가득한 벼슬아치들 봄빛에 아양을 떠는구나.  
조회할 땐 모두 태평의 즐거움을 축하하지만  
그 누구가 위태로운 말이 포의(布衣)에서 나오게 했느뇨.  
(宮柳靑靑花亂飛 滿城冠蓋媚春暉  
朝家共賀昇平樂 誰遣危言出布衣)<sup>25)</sup>

위의 시는 ‘임숙영의 과거 낙방’을 풍자한 것이지만, 이것은 역시 일찍이 자신의 시험지를 흠잡아 낙방시켰던 그 ‘부패한 관리들’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잠재된 것이다. 그러므로 ‘임숙영의 과거 낙방’은 ‘권필의 과거 낙방’과 일치한 것이라는 권필 내부의 불만을 읽지 않고, 죽음을 무릅쓴 풍자시 「문임무숙삭과」를 온전히 읽을 수 없다. 한 마디로 ‘부정적인 왕(아버지)’에 대한 비판 시이다.

---

25) 같은 책, 289면.

### Ⅲ. ‘긴 칼’의 의미

「취시가」의 기본 소재는 ‘김덕령의 원사(怨死)’이다. 임진왜란으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통하게 죽게 함, ‘군부(君父)’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이다.

김덕령은 시인이 아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온 몸을 던질 각오에 있었던 것은 시인 권필과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상(二相)의 목을 베라’는 것은 실로 권필 자신의 목을 내놓고 말한 ‘우국지사의 통탄’이다. 당시 권필의 식견이 존중된 것이 아니라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니, 권필은 술과 몽환의 세계로 역시 다시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김덕령은 임금의 친국에 목숨을 잃었지만 권필은 스스로 술을 마셔 몽환의 세계에 즐겨 빠졌다. 죽은 김덕령은 권필의 꿈속에 「취시가」로 다시 융합했으니, 권필은 살아서 김덕령이 되었고 김덕령은 죽어 술 취한 권필이 되었다. 술과 꿈은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현실을 떠난 딴 세계(무의식)의 체험인데 대해, 살아 있는 사람(권필)이 전제된 죽은 사람의 세계(저승)는 역시 딴 세계로의 여행 체험이 무의식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sup>26)</sup> 김덕령은 죽어서 그의 억울함을 「취시가」로 나타냈는데, 실은 김덕령의 체험이 아니라 권필의 체험이 전제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취시가」는 권필의 ‘거세(죽음)’의 슬픔을 노래했다는 측면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취시가」의 첫 부분 ‘술 취해 노래 부르니, 이 곡조 알아들을 사람이 없구나’는 ‘술 취한 상태’를 ‘꿈속에 있는 상태’ ‘무의식의 상태’ (김덕령의 경우)죽음의 상태’에서 노래 부르니 시를 현실적인 인간(술 취하지 않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고 ‘절망감’을 나타내었다. ‘절망감’은 ‘포기’의 직전 단계이니 바야흐로 ‘거세

26) S. T. 355면.

(죽음, 포기)'가 임박해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다. 그러므로 「취시가」는 죽음에 임박한 김덕령의 '최후진술'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서 『선조실록』이나 『김덕령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의 최후진술은 비장한 것이었고 너무나 통탄과 애처로움을 자극하게 하는 바다.

「취시가」 다음 구절에 이어진 바가 '나는 꽃과 달에 취하고 싶지도 않다'이다. 이것은 '욕망 포기'의 고백이다. 김덕령은 '욕망 포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욕망이 없었다.'라고 말한 셈이다. 이는 소위 권필(김덕령)의 '어머니에 대한 철저한 단념'은 아버지(왕, 선조) 앞에 맹세하는 것인데, 이것이 죽음(거세) 직전에 행해진(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독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련한 상황인가.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최고의 욕망실현'으로 알고 죽음을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기는 것으로 체험하는데<sup>27)</sup> 권필(김덕령)의 이 고백은 죽음 직전에 아무도 들을 사람도 없는 이 심경의 저편에서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인가.

「취시가」 그 다음에 이어진 구절이 '나는 공훈을 세우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이다. '공훈'은 일단 '화월(花月)'과 구분되고 있지만, '공훈'은 결국 '화월'과 상통하고 있다. '공훈'은 상(賞)을 전제로 한 '공훈'인데, '상'이란 바로 '화월'과 통할 수 있고 궁극에는 '욕망'이 부응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인이 '공훈을 세우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말한 '화월에 취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역시 '듣는 이 없는 고백'이고 보면 이미 '거세(죽음, 포기)'를 전제로 한 운명의 수용이란 측면에서 더없이 슬픈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취시가」는 그 다음 김덕령(권필) 스스로가 왜 '화월'과 '공훈'을 원하지 않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들은 한 마디로 '뜯구름' 즉 '쓸데

---

27) J. Jacobi & R. F. C. Hull(Edited by), C. G. Jung: *Psychological Refle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105면 "a return to the mother's womb"



없는 욕망의 흥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sup>28)</sup> 그렇다면 권필(김덕령)이 진정으로 소원하는 바는 무엇이라는 말인가. 「취시가」에서는 '다만 한가지 소망은 긴 칼 잡고서 밝은 임금 받드는 것(只願長劍奉明君)'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밝은 임금'이라는 부분이다. '김덕령을 죽인 선조 임금'은 결코 '밝은 임금'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에 다시 '칼'의 상징성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다.

C. G. Jung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 바 있다.

극도로 마음이 여리고 게으르고 비활동적인 나의 환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상한 옛날 암호가 새겨진 특별한 옛 검(劍)을 주었다. 그것을 꿈꾸었던 사람은 이 선물이 정말 기뻐했다.

꿈꿀 당시 그는 가벼운 신체적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과도한 인상을 주었고, 그래서 그는 완전한 좌절과 비활동적인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그는 그의 인생에 모든 기쁨과 흥미를 잃었다.

그 환자는 이른바 '아버지 콤플렉스'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아버지의 남근적 위력(검)을 갖기를 소망했다. 그것은 분명히 그의 아동적 망상(his infantile mistake)인데, 그는 '넓은 성적 방법'으로 인생을 정복하는 것 이외에 더 좋은 어떤 다른 것으로 정복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꿈상징에로의 환원이 아주 만족스러운 것이다. 환자가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 야만 어려움 없이 이 방법으로 그의 꿈을 해결할 수 있다.<sup>29)</sup>

권필의 궁극의 소망은 '아버지의 남근적 위력(the phallic power of his father=sword)'이라고 분석해낼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권필의 아동적 소망의 연장선상에서 문제된 것이니 도저히 이루

28) C. G. Jung, *Civilization in Transiti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428면, "구름이란 태양(의식)의 체계를 포기케 하는 것"

29) C. G. Jung, *The Psychogenesis of Mental Disease*, Routledge & Kegan Paul, 1972, 183-4면.

어질 수 없는 소망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명군(현명한 군주)’은 아동시절 ‘어머니’의 변용임은 쉽게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결국 어머니를 놓고, 아버지의 위력에 절망한 권필의 아동적 체험이 성인이 된 후 당시의 국가적 사회적 문제와 새롭게 변용 종합된 것이 「취시가」라는 점을 이에 이해할 수 있다.

권필이 마음속에 지닌 ‘아버지 남근 위력’에 대한 소망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나 알아들어서도 안될 억압의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노래’(無人知)이다. 더구나 그러한 권필의 궁극의 소망은 김덕령의 시집에 있는 것을 보고 외운 것이라고 위장하고 있으니 그 본모습을 투시하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 권필은 이 「취시가」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장군께서는 지난날 황금 창을 잡으셨으나  
장한 뜻이 중간에 꺾임은 운명이니 어찌하겠습니까.  
땅속에 있는 당신의 끝없는 한스러움은  
분명히 한 곡조 <취시가>에 나타나 있소.  
(將軍昔日把金戈 壯志中摧命奈何  
地下英靈無限恨 分明一曲醉時歌)<sup>30)</sup>

「취시가」는 권필의 아동적 ‘아버지 남근 위력’에 대한 소망과 그에 대한 자신의 절망감을, 성장한 수 임진왜란이라는 시대 상황과 연관 지으며 ‘아버지’를 선조임금과 김덕령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비극의 원본 「취시가」를 썼다. 「취시가」는 표면적으로 김덕령의 절망과 거세(사망)을 애도하고 있으나, 내면으로는 권필의 시대적 울분과 통치자들에 대한 불만을 담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권필의 아동시절 ‘아버지 남근 위력’에 좌절된 비극적 체험에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이다.

30) 석주집, 239면.

권필의 시는 전체적으로 남성적 기개가 넘치는 작품이 많다. 그 중에도 「취시가」는 그러한 시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만하다. 「취시가」는 저항을 담았고 비판을 담았고 절망을 노래했기 때문이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 ‘장검(長劍)’을 소망하는 아동적 비극체험이 전제되어 있으니, 「취시가」는 비단 시인 권필의 개인적 콤플렉스를 구체화한 것을 뛰어넘어, 인류 보편의 무의식을 확인케 하는 작품이다. 작품 「취시가」에 가장 중핵적인 시어(詩語)는 ‘긴 칼(長劍)’인데 시인 권필은 ‘오직 장검만을 원한다(只願長劍)’고 하였다. 용은 이를 ‘권필은 낡은 성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정복하는 것 이외에 더 좋은 어떤 다른 것으로 정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 셈이고 그것은 권필의 ‘아동적 망상(his infantile mistake)’의 발동이라는 것이다. 이것(망상의 발동)이 바로 비극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바다.

「취시가」는 ‘아동적 망상(=아버지 남근의 소망)’의 철저한 포기를 서정시화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김덕령이 황금창(金戈)을 잡았다가 중도에 꺾이었는데, 권필의 ‘장검(長劍)에 대한 소망’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다. 권필의 구극의 절망에 이 아동적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취시가」의 분석에 결코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구극의 슬픔’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빼놓을 수 없다. 권필 스스로도 꿈속에 이미 엄청난 절망감을 체험했던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는 그가 깨어나서 지은 시중에 ‘땅속에 있는 당신의 끝없는 한스러움(地下英靈無限恨)’이라는 진술이 바로 그것이다. 권필의 꿈속에서는 ‘김덕령의 절망이 스스로의 절망’이었는데, 깨어나서는 (의식적으로는) 김덕령의 절망은 김덕령의 절망일 뿐 권필 자신의 절망은 아니었다. 즉 김덕령은 거세되었으나(땅에 묻혀 있으나) 아직 권필 스스로는 땅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장군 김덕령과 시인 권필은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작품 「취시가」

에서는 완전히 시인의 상상 속에 서로 동일시되었다. 꿈속에서는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깨어 보니 김덕령은 김덕령이요 권필은 권필이다. 김덕령은 죽었고 권필 스스로는 아직 살아 있다. 김덕령은 이미 죽은 존재라는 측면에서 아버지와 같은 위치로 승격되어 있다.<sup>31)</sup> 일찍이 ‘황금창(金戈)’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이미 죽은 존재(육망이 완전 포기된 존재)라는 측면에서 ‘긴 칼이 없는’ 권필 자신의 이미지로도 역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취시가」의 ‘긴 칼’은 세상에 큰 법을 집행하고 궁극적 힘의 상징이다. 앞서 권필이 ‘조현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挽隨重峯先生」)’에서 인용된 바, 주운(朱雲)이 원했다는 ‘참마검(斬馬劍)’도 임금(성제)이 지니고 있는 칼이었다는 측면에서 권필이 「취시가」에 소망했던 ‘긴 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시인의 상상력이 주도(周到)함은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시 돌아가 고려할 만한 것이, 김덕령(권필)의 「취시가」를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다(無人聞)’ ‘알 사람이 없다(無人知)’고 권필이 탄식했던 점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권필이 ‘아버지 남근 위력’을 소망하는 일은 이미 억압된 일이므로, ‘들을 사람도 없고 알 사람도 없다’는 진술은 거짓이 없는 진술이다. 그런데 권필(아니 모든 시인)의 슬픔의 원인은 바로 ‘들을 사람 알 사람이 없다’는 사실(무의식에도 억압 거세되었다는 사실)에 바로 기초한다는 점이다. 권필은 그것을 운명(命)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은 권필(모든 시인)의 운명이자, 짐승이 아닌 모든 인간의 운명이다. 권필은 모든 인간에 감추어진 운명(아동적 소망을 잘못된 것으로 억압되지 않을 수 없다는 운명)을 김덕령과 권필 자신만 느끼는 ‘억압’으로 「취시가」를 써 놓았다. 그리하여 그 ‘억압’ 체험을 생생하게

---

31) J. Campbell, *The Hero with Thousand Fa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171면, “Whatever is killed becomes the father”

지니고 있는 모든 이를 「취시가」속으로 끌어들여 그 ‘인간 보편의 체험’을 모두 자기 개인의 ‘기구한 운명’처럼 느끼도록 장치하였다. 시 「취시가」는 ‘비극의 원본’을 취한 작품이다. 권필이 스스로의 콤플렉스를 역사적인 존재 김덕령을 끌어들여 스스로의 아동적 환상(아버지 남근 위력 소망)을 깨끗이 서정시화 한 것이다.

#### IV. 「취시가」의 아름다움

권필의 「취시가」는 한 편의 짧은 서정시에 불과하지만, 실로 권필의 인생과 시대고(時代苦)를 응축하고 있고, 현실 의식과 무의식의 소망을 함께 어우른, 권필의 시적 재능이 빛어낸 ‘명시(名詩)’라 할 만하다.

권필은 「취시가」에서, 자신의 특징을 당시 사회의 최고 ‘울분과 탄식의 영웅’ 김덕령을 통해 십분 구현함으로써 그의 여타 시가 발휘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보이고 있다. 「취시가」는 권필이 쓴 시지만 당초에 김덕령의 시집 속에 있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고 전제함으로써 서사문학 『김덕령전』을 한편의 짧은 서정시 속에 삼켰다.

권필의 「취시가」는 ‘아버지 남근 위력을 소망’하는 ‘아동적 소망’, 소위 ‘비극적 체험’의 원본을 작품 속에 명시함으로써, 모든 시인들의 콤플렉스, 더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마음속에 억압하고 있는 무의식적 대 전제를 ‘들어가 체험’할 수 있게 해 놓았다. 한 마디로 권필은 「취시가」를 통해 아직도 취소되지 않은 ‘아버지 남근의 위력(긴 칼)’에 대한 소망을, ‘나라를 걱정하는’ 현실적 의식적 문제로 변용하여 성공적으로 시화(詩化)하였다.

권필 시의 주조는, 현실에 절망하고 술에 취하고 꿈속을 헤매는 내용인데, 이 모두를 한 시 작품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취시가」이

다. 그는 「취시가」를 통해 모든 시인이 울분하는 원천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놓았고,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절망감의 원천을 명시했다.

#### 참고 문헌

권 필, 『석주집』, 오성사, 1982.

허균, 『(국역)성소부부고』, 민족문화추진회, 1983, II권.

이상은 편, 『한국역대인물집성』, 민창문화사, 1990.

이병도, 『국사대관』, 보문각, 1959.

『선조실록』, 민족문화추진회, 1987, 18권.

『충용장군 김덕령전』, 덕흥서림, 1926.

J. Jacobi & R. F. C. Hull(Edited by), C. G. Jung: *Psychological Refle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C. G. Jung, *Civilization in Transiti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J. Campbell, *The Hero with Thousand Fa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C. G. Jung, *The Psychogenesis of Mental Disease*, Routledge & Kegan Paul, 1972.

<투고일 : 2004.10.5. 심사일 : 2005.1.20. 심사완료일 : 2005.2.2>

Abstract

A Study on Gweon-Pil's 「Chi-Si-Ga(The Song of Being Drunk)」

Jeong, Sang-gyun

Gweon-Pil(1569 ~ 1612) was a great poet in the middle period of the Yi dynasty. His poetic talent was estimated as the highest class of the age by Heo-Gyun(1569 ~ 1618) who wrote a preface to 『Seok-Ju-So-Go (Collected Poems of Gwoen-Pil)』.

In the days of the king Seon-Jo of Yi dynasty was the war Japanese invasion of Korea. At the time Gweon-Pil advocated war. However the war situation was bad. The general Kim-Deok-ryeong (1567 ~ 1596) was intrigued against and died on the scaffold.

Taking the subject matter from this event, Gweon-Pil wrote the poem 「Chi-Si-Ga(The Song of Being Drunk)」. Once a day he looked a book in dream which was written by the general Kim-Deok-ryeng. In the book, he said, was the poem 「Chi-Si-Ga(The Song of Being Drunk)」.

Gweon-Pil had a Kim-Deok-ryeong complex. He said in 「Chi-Si-Ga」 that “I do not want a great achievement and a beautiful woman but just a long sword”. The symbolism of ‘long sword’ is a power in general, ‘the imaginary phallus’ and ‘the phallic power of his father’ in psychological point of

view

The beauty of 「Chi-Si-Ga(The Song of Being Drunk)」 is a tragic one. The song contains the meaning that Gweon-Pil attempted to be the imaginary phallus for the mother (for his country) in dream which is impossible in real world.

**Key words : Gweon-Pil, Chi-Si-Ga, Seok-Ju-So-Go, Kim-Deok-ryeong complex**

K C I



KCS I